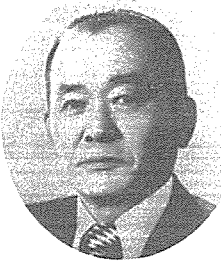


國民生活의 科學化로

— 探求精神과 科學精神을



閔寬植會長

尊敬하는 李正五科學技術處長官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신 科學技術人, 學生, 主婦, 一般市民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第2回 科學化 模範事例發表會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昨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 發表會를 통하여 本聯合會는 國民生活 科學化運動을 全國民의 日常生活 구석구석에 擴散시키려는데 그 目標를 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科學技術을 振興시키고 發展시키는데는 優秀한 頭腦를 所有하는 것도 勿論 重要하지만 全國民이 科學과 技術을 理解하고 이를 生活化하는것도 커다란 힘이 된다고 確信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分野의 資源이 節對적으로 不足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科學技術을 통한 新技術開發에서 그 對策과 活路를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參席하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韓國經濟의 生命줄은 輸出에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치솟기만하는 기름값 引上으로 因하여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實情으로 過去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요즘에 더욱 더 輸出商品의 高級化 다시말하자면 技術競爭이 熾熱해지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멀리 土星의 寫眞까지 찍어오는 소위 宇宙時代에 살고 있는 오늘 이와같은 行事를 一部에서 過少評價할줄 모르겠

國家發展에 寄與確信

日常生活에도 應用해야 -

으나 그렇게 生覺하는 것은 큰 誤解라고 生覺합니다. 人類의 偉大한 꿈을 實現시킨 달 征服計劃도 한 이름없는 科學徒의 落書그림에서 달着陸이 實行되었다는 事實을 想起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9名의 演士가 發表하는 內容들은 一部는 地域豫選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本聯合會에서 豫審을 거쳐 嚴選한 事例들 입니다. 그 모두가 日常生活에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平凡한 事實들이지만 여기에는 偉大한 探究精神과 科學精神이 깃들어 있다고 本人은 生覺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日常生活 속에 받아들여 널리 活用하고 普及하는 것이 이 분들의 그동안의 勞苦에 多少라도 報答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發表者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勞苦를 다시 한번 致賀합니다.

끝으로 이번 行事を 積極 支援하여 주신 科學技術處 當局과 關係者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리면서 科學의 生活化 運動이 우리들의 가까운 生活 주변에서 일어남으로써 福祉 國家建設에 밑거름이 될것을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0年 12月 12日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閔 寬 植